

인터넷은행 포용금융 충족했지만 중·저신용자 확대에 건전성 부담

중저신용 대출비중 33.7% 기록
카뱅·케뱅·토뱅 모두 30% 달성
연체율도 0.03~0.08%p 올라
포용금융 비율 목표축소 지적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가계대출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 중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 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개인 신용 대출, 개인사업자 신용 대출, 서민금융대출 중 보증 한도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33.7%를 기록했다.

◆ 목표치 30% 웃돈 포용금융

카카오뱅크는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2.9%, 신규취급액 기준 35.4%를 달성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대출을 최저 3% 금리에 공급하며,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늘렸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32.2%에서 ▲올해 1분기 32.8% ▲2분기 33.1%까지 오른 뒤 ▲3분기 32.9%로 소폭 하락했다.

케이뱅크는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3.1%, 신규취급액 기준 33.9%를 기록했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

출 비중은 지난해 말 35.3%에서 3분기 33.1%로 급격히 하락했다.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5.2%, 신규취급액 기준 43.7%로 집계됐다. 토스뱅크는 2024년 말 34%를 시작으로 올해 ▲1분기 34.3% ▲2분기 35% ▲3분기 35.2%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까지 ‘평잔 기준 30%’만 제시하던 기준에서 올해부터 ‘신규취급액 30%’ 항목을 추가한 상황에서 3곳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

◆ 금융당국, ‘포용금융’ 확대하나

다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 3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0.51%로 1년전(0.48%)과 비교해 0.03%포인트(p) 상승했다. 토스뱅크도 같은 기간 0.99%에서 1.07%로 0.08%p 올랐다.

올 3분기 케이뱅크만 같은 기간 0.88%에서 0.56%로 낮아졌는데 그 이유가 중저신용자 특화모형을 도입한 신용

평가모델(CSS) 3.0을 적용한 것 외에도 중저신용 대출 잔액 비중을 낮췄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포용금융 비율 목표치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정책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율이 적절한지 여러 지표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인터넷은행에 2026년까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평균 잔액 30%, 신규취급액 30% 이상을 요구했다. 중저신용자가 연체를 할 가능성이 고신용자보다 높으므로,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사업 인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악화될 수 있기에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추가로 중저신용 목표 비율이 상향되면 건전성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인터넷은행들의 경영 부담은 크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저축은행 점포·인력감소 가속

수익성 악화에 따른 비용 효율화
상반기 점포, 전년대비 17개 감소

저축은행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통합하거나 폐지해 몸집을 줄이고 있다. 자연스레 임직원 수까지 줄어 들면서 업권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3일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점포는 총 247개로 지난해 말(257개) 대비 10개가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17개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점포 감소 폭은 지난해 상반기(11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지난 2022년에는 상·하반기 각각 6개씩 줄었고, 2023년에는 점포가 상반기 4개, 하반기 2개 감소했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이후 2024년 상반기에는 점포가 11개 줄며 감소 폭이 급증했고, 하반기에는 7개로 다소 축소됐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 다시 점포 수 10개가 줄었다.

상반기 폐점 점포를 살펴보면, 한국투자저축은행 평택지점, OK저축은행 전주지점, 모아저축은행 수원지점이 1~3월 사이에 문을 닫았다.

이어 4~6월 사이에는 OK저축은행의 대전지점, 동대문지점,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잠실지점, 다올저축은행의 압구정지점, IBK저축은행 울산지점, 부산중

앙지점, NH저축은행의 이수역지점이 문을 닫았다.

앞으로 저축은행 점포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KB저축은행은 올해 안으로 여의도지점을 폐쇄한다. 이로써 KB저축은행 점포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본점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분당지점 단 두 곳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임직원 수도 자연스레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과 비교했을 때 올해 상반기 계약직 직원을 포함한 저축은행업계 임직원 수는 9375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88명이나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감소 폭(-90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로, 감원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직원 모집도 감소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대신저축은행은 지난 2022년 이후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지난 2023년 채용 이후 약 2년간 신입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점포와 인력이 감소한 배경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비용 효율화와 비대면 금융 확산 때문이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 확산 추세에 따라 여의도 영업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면서 “오프라인 영업점은 최소한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신한은행, 생산적 금융에 520억 지원

초혁신·핵심산업 성장지원 패키지
약 6.9조 규모 신규대출 금리 혜택

신한은행이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실시한다.

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성장지원 패키지는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이다. 총 6조9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약 520억원의 금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성장지원 패키지는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영위 기업 대상 신규대출 금리 지원 프로그램 ▲고금리대출 이자 환급 및 원금 감액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관련 산업과 국가핵심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의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1년간 최대 100bp(1bp=0.01%포인트)까지 금리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대출의 12개월 이내 연기 시 대출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7%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중 최대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2월 준순부터 1년간 시행되며 대상대출 규모는 약 9799억원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 및 최근 6개월 간 원리금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서울 무주택자, ‘청량리 줍줍’에 12.6만명 몰렸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불법 청약에 따른 계약 취소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무순위 청약에 12만6000여명 가까이 몰렸다. 서울 거주에 무주택자만 가능했지만 당첨만 되면 10억원 안팎의 차익 기대에 수요가 대거 쏠렸다.

3일 청약홈에 따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무순위 3가구 청약에 12만5934명이 접수했다. 이번 몰림은 불법 청약에 따른 계약 취소분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전농동 일대에 들어섰으며, 4개동 총 1425세대 규모다. 이미 지난 2023년 7월에 입주자를 마무리한 단지다.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다. 분양가는 지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조감도. /롯데건설

2019년 7월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84㎡ A 10억2930만원, 84㎡D가 10억4460만원이다. 타입별로는 A형 2가구에 7만 6443명, D형 1가구에는 4만 9491명이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의 전용면적 84㎡는 올해 10월 19억 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시세차익과 함께 토지거래허가나 실거주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로 전용 84㎡는 대지 지분이 15㎡를 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19년 8월부터 3년간인 전매제한 기간도 이미 끝났으며, 실거주 의무도 없어 바로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약 재당첨 제한만 10년이 적용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5일이다. 계약금은 10%로 중도금 60%를 내년 1월 12일까지 내야한다. 나머지 잔금 내년 2월 9일까지 납부다. /안상미 기자 smahn1@

Sh수협은행, 최민성·이준석 부행장 연임

Sh수협은행은 3일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금융기획부 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3

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돼 2년간 기업그룹 운영을 담당해 왔다.

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역시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융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23년 12월에 부행장직을 맡아 2년간 여신지원그룹을 담당했다.



최민성 부행장

이준석 부행장

연임된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과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12월 1일까지다. /안재선 기자

기업銀, IBK벤처스타트업 이음페스티벌

IBK기업은행이 ‘2025 IBK벤처스타트업 이음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술과 자본의 만남’을 주제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위해 투자·시장·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자리에 연결하는 종합 네트워킹 행사다. 스타트업을 비롯해 VC, 대기업, 유관기관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퓨리오사AI, 노아스팜 등

국내외 대표 혁신기업과 DSC인베스트먼트, 사제파트너스 등 주요 투자사가 참여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대담이 진행됐다.

이어서 뮌헨테크놀로지스, 아이엠지티, 에스엘엘중앙 등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분야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들이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포럼이 열렸다. /나유리 기자